

-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편 105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있으시죠?

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좁아져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그 뜻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를 사랑하고 기도해주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어린이 사역

① 토요일 사역

올 해 어린이 사역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네 곳의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것을 이 나라의 대중교통인 짜프니를 매 주 토요일마다 빌려서 각 마을의 아이들을 태워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교회에 오게 하여 이 아이들이 앞으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교회를 통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 자리에 모여 각 마을 아이들이 친숙해 지고 함께 식사하고 공부도 함께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역하는 방식은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점심엔 교회 성도들이 요리한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고, 오후엔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통해 성장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짜프니가 고장이 잦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사들이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믿음이 커져가고 지혜가 자라나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② 일대일 입양운동

저희들이 일대일 입양운동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많은 어린이들이 매우 가난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 저희들의 선교비로는 도울 방법이 없어서 한국의 후원자들과 연결하여 도와주려 합니다. 이번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10명의 아이들이 후원자를 찾았고 후원비를 통해 매 달 우유를 받고 학자금을 적립하여 학비와 교복, 학용품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어린이 사역에 잘 참석하는 아이들 중에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학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한국 후원자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90 여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의 뜻있는 성도들이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 주어 기도해 주고 후원해주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선발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찌프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일대일 입양” 엔젤의 가족사진(오른쪽 두번째)

2) 청소년, 청년 사역

① 장학금 지급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매년 두 번(6월, 11월)에 걸쳐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년들과 대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성경과 영어 시험을 치루어 통과된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이번 달에는 대학생 4명과 사역자 2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다가 장학금을 통해서 다시금 학교에 복학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장학증서 수여와 교사 임명식

② 공립학교 교사 양성

교회 사역과 별도로,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다바오 시내에서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범대와 교대 학생들, 그리고 이미 교사가 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필리핀 공립 학교는 예전 한국의 7-80년대 학교처럼 한 반에 60여 명의 학생들이 10반 이상 한 학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립 학교 교사가 기독교인 가운데 양성되면 많은 아이들이 날마다 교사를 통해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지요. 저희는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사들을 양성하는 꿈을 꾸며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보통 먼 시골에서 와서 자취 생활을 하는데, 저희는 이들을 위해 집 한 채를 세를 얻어 구하여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매 달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 교회에서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지,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집을 구하려고 찾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적절한 장소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운영할 물질이 매 달 채워지도록,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사역자들 위해

저희 교회에 줄리또, 제이드, 인다이, 엔젤 4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줄리또는, 저희 EMC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대학으로 다시 진학해서 벌써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뚜릴 지역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줄리또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이드는 저희 EMC 신학교를 졸업 후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뛰어나며 교사 임용 교시를 통과한 제이드가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한 학교 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다이는 저희 EMC 신학교를 졸업 후 일반대학 초등교육학과에 진학해서 지금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마치고, 좋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엔젤은 저희 EMC 신학교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엔젤도 신학교 졸업 후에 일반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해서 학교에서 교사로서 섬기려고 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분들이 교사이면서 목회자로서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저희 가족 위해

저희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한 저희 자녀들인 형민이(고1), 예현이가(중2) 학교 공부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민다나오에서 김상식, 이성진, 형민, 예현 드림